

명사형 사역동사 연구

-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

이영희*
liyingji@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2.3 중국어와 일본어 명사형동사의 사례분석 |
| 2. 명사형동사의 의미론적 접근법 | 3. 명사형동사의 통사론적 분석 |
| 2.1 어휘개념적 의미론 | 4. 마치며 |
| 2.2 어휘분해 문법 | |

主題語: 編入(incorporation), 명사형동사(denominal verbs), 위치동사(locational verbs), 이동동사(locatum verbs), 착점동사(goal verbs), 어휘개념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 어휘분해문법(lexical decompositional structure), 의미형식(semantics form)

1. 들어가며

우리는 어휘 사역 동사를 통하여 이들의 표면은 비록 단일 형태소(monomorphemic)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이들은 통사론적인 동사의 편입(編入, incorpor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진 복잡한 술부(述部, predicates)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¹⁾. 어휘항목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연구는 ‘kill(死)’의 파생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²⁾. Hale와 Keyser(1991,1993)는 이런 현상을 재해석하면서 명사의 편입을 통하여 능격동사(能格動詞, ergative)의 파생을 제안하여 왔는데 예를 들면 “laugh→do a laugh(웃다→웃음을 짓다)”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매커니즘을 우리는 위치성동사(locational verbs) “尿(오줌 누다)→撒一床尿(한 침대 가득 적셨다/오줌을 똥다)”로 확장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유추는 아주 휴리스틱하기에 우리가 사역명사형동사(使役名詞形動詞, denominal verbs)³⁾에 통일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중어중문과 부교수

1) Hale와 Keyser(1993), Kural(1996)를 참조바람.

2) McCawley와 Lakoff(1997)의 “안 살아있게 하다(cause to become not alive)”와 같은 연구를 개별언어에 적용하는 작업들이 두루 이루어져 왔다.

3) 영어 용어 “denominal verbs”를 명사성 동사, 명사형 동사, 명동사 등과 같은 번역이 있지만 본 논문의

모든 어휘사역동사(語彙使役動詞)는 영파생동사(零派生動詞)로 처리된다. 영파생 혹은 변환(變換, conversion)⁴⁾은 하나의 단어구성과정으로서 기반명사 혹은 형용사의 기능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대응되는 변화가 없다. 외현접사(外顯接辭, over affixation)와는 달리 여기에는 파생이 명시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하여 그 어떤 형태론적인 기능이 작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단어구성이 어떻게 특징지어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된다. 일부 문헌자료들에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영파생은 음운론적으로 공(空, null) 혹은 “영접사(零接辭)”를 연결하여 새로운 어휘항목을 창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외현접사와 유사하다.

영파생은 외현접사단어를 구성하는 것처럼 명사형동사와 형용사형동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래의 제시를 보자.

명사 → 동사	형용사 → 동사
blanket(담요) (to) blanket(덮다)	clear(깨끗하다) (to) clear(깨끗해지다)
mother(엄마) (to) mother(엄마하다)	pale(창백하다) (to) pale(창백해지다)
hammer(망치) (to) hammer(망치하다)	thin(가늘다) (to) thin(가늘어지다)

Clark와 Clark(1979)는 기반명사에⁵⁾ 기초하거나 역할에 근거하여 명사형동사를 8가지 유형으로 식별하였다⁶⁾. 본 논문은 이 중에서 위치(location), 이동(locatum), 착점(着點, goal) 동사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2장은 의미론적으로 접근하여 의미구조, 어휘분해를 통하여 명사형동사에 관하여 분석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의 명사형 동사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할 것이고, 3장은 명사형동사의 통사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것이다.

취지에 부합되는 ‘명사형동사’를 사용한다. 본 저자는 중국어 논문에서 “de-adjectival verbs”을 “形源動詞”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지만 한글 논문에서는 “denominal verbs”을 “名源動詞”로 번역하지 않고 한글사 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 4) 형태론에서 zero-derivation을 말한다. 즉 접사첨가에서 동일요소(identity-element)만이 붙어 파생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동사가 명사로의 零派生은 ‘V+ \emptyset →N’처럼, 명사가 동사로의 파생은 ‘N+ \emptyset →V’게 도식화할 수 있다. 여기서 ‘ \emptyset ’는 單位元(identity-element)이다. -『언어학사전』참조
- 5) Clark와 Clark(1979)에서 사용된 “parent noun” 혹은 “base noun”을 본 논문에서는 모두 통일적으로 ‘기반명사’로 사용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root noun(뿌리명사)”용어를 사용할 때도 있음.
- 6) Clark와 Clark가 구분한 이동(LOCATUM), 위치(LOCATION), 착점(GOAL), 도구(INSTRUMENT), 行爲者(AGENT), 지속(DURATION), 경험(EXPERIENCER), 起點(SOURCE)이다.

2. 명사형동사의 의미론적 접근법

영어에는 많은 명사형동사가 존재한다.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외현적인 파생형식이 없는 명사에서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1) [[ROOT]_N]_V (Labelle 2000)

(2) a. [[box]_N]_V

b. [[jail]_N]_V

c. [[kennel]_N]_V

(1)에서의 [ROOT]_N는 대응되는 동사가 형태론적으로 영파생 기반명사를 나타내며, (2)는 동사 ‘to box, to jail, to kennel’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명사형동사연구는 명사형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적어도 기반명사(roots)와 비슷한 의미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⁷⁾ 우리가 분석할 이동, 위치, 착점동사의 타동용법은 필연적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모두 “상태 혹은 위치 변화의 인과관계” 의미를 지니고 있다(Mateu, 2002). 위치동사는 동사가 동작한 결과 대체된 목적어가 점령한 위치의 동사를 가리킨다. 이동동사는 동사의 동작결과 목적어가 처한 위치의 동사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to blanket the bed”는 “to put a blanket on the bed”와 같은 유형의 인과관계 의미를 나타내며, “CAUSE N to GO to some PLACE”의 의미를 나타낸다. 착점동사는 동사가 행위한 착점 혹은 종결점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작한 결과 이 동사들은 모두 특정한 형태(形態, shape), 형식(形式, form) 혹은 역할(役割)이 있게 된다. 예를 들면 “The king knighted the brave soldier”는 “The king made the brave soldier a knight”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 ‘to knight’는 “make someone (be) a knight”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명사 ‘knight’는 표면상 동사의 목적어가 예측되기 때문에 “착점동사(着點動詞)”라고 이름을 붙였다.

(3) a. He caged his favorite bird.(그는 좋아하는 새를 가둠다)

b. She packed the books. (그녀는 책을 쌌다)

c. She bottled the wine. (그녀는 와인을 담았다)

7) 이런 관점은 Clark와 Clark(1979), Marchand (1969), Wunderlich 1987), Kiparsky(1997)에 근거한 것이다. Clark와 Clark에서는 [ROOT]N을 “parent noun”라 칭하고, Labelle는 “incorporated noun(編入된 명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a. John saddled the horse. (존은 말에 *있었다*)
- b. John buttered the bread. (존은 빵에 버터를 *발랐다*)
- c. Marry bandaged the wound. (매리는 상처를 *감았다*)
- (5) a. Eve fragmented her novel (in episodes).
(이브는 그녀의 소설을 에피소드로 *쪼갰다*)
- b. Jean heaps the books (in the cerner). (진은 책을 구석에 *쌓았다*)
- c. The child braids her hair. (어린이는 갈래머리를 *땸었다*)

예문 (3-5)의 위치동사, 이동동사, 착점동사 모두 명사로 구성되었다. (3a)의 위치동사 “to cage”는 명사 “cage”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엔티티 “bird”의 마지막 위치와 일치하며, (3b-c)의 위치동사 “to pack”와 “to bottle”는 명사 “pack”과 “bottle”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엔티티 “books”와 “wine”의 마지막 위치와 일치하며, 이렇게 위치한 엔티티(bird/books/wine)는 직접목적어의 위치를 점한다.

(4a)의 이동동사 “to saddle”는 명사 “saddle”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대체된 엔티티 “horse”의 위치와 일치하며, 이렇게 대체된 엔티티(horse)는 직접목적어가 된다. (4b-c)의 이동동사 “to butter”와 “to bandage”도 명사 “butter”와 “bandage”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대체된 엔티티 “bread”과 “wound”의 위치와 일치하다. 이렇게 대체된 엔티티(horse/bread/wound)도 직접목적어의 위치를 점한다. 이와 같이 위치동사와 이동동사는 모습(Figure)을 배경(Ground)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착점동사 예문 (5)는 조금 다르다. 비록 (5a)의 동사 “to fragment”도 명사 “fragment”에 의하여 구성되었지만, 대체된 엔티티 “novel”의 최종상태를 기술한다. 착점동사는 직접적인 내부논항을 엔티티(에피소드)로 하고, 그 명사의 뿌리가 최종상태를 나타낸다. (5b-c)의 동사 “to heap”와 “to braid”도 명사 “heap”와 “braid”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대체된 엔티티(books/hair)의 마지막 상태를 기술한다. 이렇게 위치한 엔티티(novel/books/hair)도 직접목적어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위치동사, 이동동사, 착점동사는 모두 기반명사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모두 직접목적어의 위치를 점하고, 타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어휘개념의 의미론적 접근

어휘의 개념적 의미에 관하여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⁸⁾ 공통점은 모두 어휘개념구조(LCS-lexical conceptual structure)를 사용한 분석이다. Jackendoff(1991)가 제안한 어휘개념구조

이론에서는 어휘개념적의미를 심적표상(mental of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구조(conceptual structure)”로 통일 되었다. 개념구조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관념적 통사론(syntax of thought)”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구조를 의미원소(意味原素, semantic primitives)로 기술하기도 하고, 의미원소와 의미원소의 결합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Thing, Event, State, Property, Path, Place’와 같은 의미원소 포함된 개념범주들은 의미원소에 작동하는 함수(函數)⁹⁾와 연결되었다. 언어적 의미(Verbal meanings)인 “GO, CAUSE, TO”와 같은 의미원소 함수를 포함한 계층구조와 “Thing, Event, State, Property, Path, Place”포함한 주요개념범주들에 함수가 작동한 논항의 계층구조를 나타낸다. 본질적으로 보면 어휘개념구조이론은 의미분해(意味分解, composition)이론이기도 하다¹⁰⁾.

위치동사 “to pocket(She packed the books)”의 개념구조는 (9a)도식과 같고, 이동동사 “to butter(John buttered the bread)”의 개념구조는 (9b)도식과 같다. 편입된 원소(元素)를 제외하고 이 두 개념구조는 (9c)의 동사 ‘put’와 완전히 동일하다.

- (9) a. Pocket:[Event CAUSE([Thing]_i,[Event GO([Thing]_j,[Path TO([Place IN([Thing POCKET]))])])])]
- b. Butter:[Event CAUSE([Thing]_i,[Event GO([Thing BUTTER]_j,[Path TO([Place ON([Thing])])])])]
- c. Put:[Event CAUSE([Thing]_i,[Event GO([Thing]_j,[Path TO([Place ON/IN([Thing])])])])]

위 도식과 같이 위치동사와 이동동사는 모두 “causitive change-of-state verbs”인 상태변화의 인과관계로 볼 수 있다. 어휘 종결성(telicity)은 추상적인 종점에서 우연한 일치 관계에 의하여 유추된 것이며, 이것은 종결(telic)형용사형동사를 위하여 상정한 것과 같은 관계이다¹¹⁾. 이것 또한 편입된 명사는 의미상 그 과정의 마지막 상태를 표시한다고 한 Labelle(1992, 2000)의 통찰과 일치하다. 예를 들면 “He shelved the book but the book was not on the shelf.”와 같은 문장에서 엔티티(book)가 꼭 책장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편입된 동사의 마지막 상태인

8) 어휘개념적 의미에 관하여 Rappaport와 Levin(1988), Pinker(1989), Jackendoff(1990), Mateu(2002)등은 모두 각각 다른 분석을 내놓았지만 대동소이하다.

9) “functions”은 “기능” 혹은 “함수”라는 의미가 있다. “기능”이라 할 때에는 서로 다른 종열(의미와 문장사이와 같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함수”는 “논항”사이의 횡렬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에 여기에서는 “함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10) 意味分解이론은 파생동사의 기술에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Lieber and Baayen (1993)통하여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복잡한 형식에서 파생된 각기 다른 形態元素로 구성된 派生語 의미에 대한 할당(contribution)을 각각 검사하는 것을 용납하기 때문이다. 어휘개념의미론에 관한 아이디어는 파생형태론에 응용되어 왔으며, 효과적인 분석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11) 李英姬(2018), 참조

“놓다/두다/꽃다/보류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며, “shelve”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도 됨을 나타낸다. “*He saddled the horse but the saddle was not on the horseback.”가 비문인 것은 편입된 동사의 마지막 상태가 “없다/앉다/지다/감당하다”를 나타내기에 그 명사에 해당되는 엔티티 “saddle”가 존재하지 않아도 됨을 나타낸다.

Jackendoff의 도식에 따르면¹²⁾ 위치동사와 이동동사는 편입된 논항이 위치동사의 마지막 위치(착점, Goal), 이동동사의 이동위치(對象, Theme)를 통하여 차이점이 식별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대상층(thematic tier)과 동작층(action tier)사이의 대응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모두 다르다¹³⁾. Jackendoff의 시스템에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기에 해석적이지 못된다. Labelle (2000)는 이동동사의 대상논항으로부터 변형논항(變更, affected argument)을 분리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위치동사와 이동동사에 편입된 명사(incorporated noun)는 직접목적어 위치에 투사되는 엔티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마지막 상태를 의미론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Sugioka(2000)에 따르면 “to jail, to ground, to center”같은 위치동사는 위치관계(location relation)를 편입하고, 반대로 “to butter, to button, to oil”같은 이동동사는 소유관계(possessive relation)를 편입한다고 기술하였다. 더 정확하게 기술하자면 명사로부터 편입한 동사를 이동된 엔티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x cause y to be with N”의 의미와 근사하며, 아래 도식 (10)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10) a. 위치(to jail, ground, center) :

[x ACT] CAUSE [y BECOME [y BE at-N]]

- 12)
- | | | |
|----|---|---|
| a. | $\left[\begin{array}{l} \text{[Event CAUSE([Thing J}_i\text{),} \\ \quad \text{[Event GO([Thing J}_j\text{),} \\ \quad \quad \text{[Path TO([Place IN([Thing POCKET])])}] \\ \text{AFF([Thing J}_i\text{, [Thing J}_j\text{)]}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Thematic tier} \\ \text{Action tier} \end{array} \right\}$ |
| b. | $\left[\begin{array}{l} \text{[Event CAUSE([Thing J}_i\text{,} \\ \quad \text{[Event INCH [BE} \\ \quad \quad \text{[Thing BUTTER],} \\ \quad \quad \text{[Place ON([Thing J}_j\text{)])])}] \\ \text{AFF([Thing J}_i\text{, [Thing J}_j\text{)]}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Thematic tier} \\ \text{Action tier} \end{array} \right\}$ |

(Jackendoff, 1990)

- 13) 각주(12)에서 (12a)對象은 두 번째 역할 ‘變更(AFF(affect))’와 연결되는데 피동주(Patient)의 역할에 對應되고, 이와 반대로 각주 (12b)對象은 피동주와 연결된 着點(Goal) 역할에 對應된다. Jackendoff가 제기한 AFFECT의 최초 개념적 의미는 화용적인 상황 기술에 사용되었으며, 의미적인 상황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즉 목적어는 어휘의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용론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직접목적어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피동주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b. 이동(to butter, button, oil) :

[x ACT] CAUSE [y BECOME [y BE with-N]]

예문 (10b)에서 “y BE with-N”는 개념적으로 “N에 y 있다”와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y BE with-N”으로 “N에 y 있다”를 나타내기 위한 동기는 최소의미원소(最小意味原素) 유지라고 볼 수 있다¹⁴⁾. “CAUSE-BECOME”에 대한 분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¹⁵⁾ 대상(對象, Theme)을 편입한 동사의 어휘개념구조는 아래 (11)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11) Saddle:

a. CAUSE (x, [BE (y, with SADDLE)])

혹은

b. [x ACT] CAUSE [y BE with SADDLE]

‘CAUSE’의 원소상태(原素狀態)은 ‘vDO’와 ‘vBE/vGO’가 합성된 것이고, (11b)와 같은 어휘 의미표현이 더 우선적이고 선호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위치동사와 착점동사는 아래와 같은 어휘의미표현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

(12) 위치 : [x ACT] CAUSE [y BE AT_{Spatial}-N]

착점 : [x ACT] CAUSE [y BE AT_{Identity}-N]

위치동사와 착점동사는 공간적위치변화와 식별적위치변화의 차이가 있다. “AT_{Spatial}”와 “AT_{Identity}”은 세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2)처럼 제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의 문장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13) a. Jack corralled the cow in the cellar. (위치)

(잭은 소를 울타리에 가뒀다)

b. Jane closeted John away in his room. (위치)

(제인은 존을 그의 방에 가뒀다)

c. Mary padlocks the gate. (이동)

(메리는 대문을 잠갔다)

14) Hale & Keyser (2002) 참조바람.

15) Haley(1999, 2002), Pytkäinen(2002) 참조바람.

예문 (13a)의 대상 혹은 엔티티 “cow”는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cow”가 처음 위치인 울타리에 있었다면 “Jack”은 “cow”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13a)은 참(true)인 것이다. “Jack”이 울타리 문을 닫는 행위로 시발위치의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Sugioka에 의하면 “Jack caused that the cow was in cellar.”은 참이고, 반대로 “Jack caused the cow to go to/become in a cellar.”은 거짓(false)이다. (13b-c)도 같은 이유로 설명이 된다. 이와 같은 예문들을 통하여 일부 명사형위치동사들은 직접목적어가 이동한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동사들은 직접목적어위치의 엔티티와 편입된 명사의 식별성 위치 사이의 인과적인(causation) 위치관계를 기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치동사와 이동동사 외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유형의 명사형착점동사가 있다. 착점동사도 명사로 구성되었고, 사물의 마지막 상태를 기술하며, 착점동사도 명사뿌리를 술어로 하는 마지막상태의 엔티티를 직접내부논항으로 간주한다. 즉 편입된 명사가 마지막 상태를 식별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예문 (5)가 바로 이것을 설명한다.

- a. Eve fragmented her novel (in episodes).
(에바는 그녀의 소설을 에피소드로 쪼갰다)
- b. Jean heaps the books (in the corner).
(진은 책을 구석에 쌓아뒀다)
- c. The child braids her hair.
(그 애는 그녀의 갈래머리를 땸었다)

예문 (5)처럼 모든 동사는 마지막에 편입된 명사가 기술하는 상태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물을 직접목적어로 한다. (5a)는 “에피소드로 이루어 진 소설”을 (5b)는 “구석에 있는 책 더미”를 (5c)는 “갈래 머리”를, 편입된 동사 “to fragmented/heaps/braids”가 기술하는 마지막 상태에 위치해 있는 사물을 직접목적어로 하였다. 이것은 아래의 (14) 예문처럼 타동성 형용사형동사와 비슷한 점을 시사한다.

- (14) a. Eve has [[[short]-en]-ed] her text of ten lines.
(에바는 그녀의 문장을 10줄로 줄였다)
- b. Eve has [[[light]-en]-ed] her suitcase of three kilos.
(에바는 그녀의 여행가방을 3키로 줄였다)

다시 설명하자면 마치 예문 (14)의 형동사형동사 “to short”와 “to light”의 기반형용사처럼

편입된 명사도 위의 예문들처럼 의미론적으로 동사로 인코딩되는 과정의 마지막 상태를 식별 혹은 동일화(同一化)한 상태이다.

2.2 어휘분해 문법적 적용

명사형동사에 대한 어휘 의미에 관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어휘분해문법(LDG-lexical decompositional grammar)이다¹⁶⁾. 어휘분해문법은 의미형식(SF-semantic form)과 개념구조(conceptual structure)를 식별하기 위하여, 어휘항목 문법과 관계되는 모든 의미정보와 개념구조를 인코딩하고, 개념적 엔티티(conceptual entities)을 포함한 언어외부 층(extra-linguistic level)을 취급한다. 의미형식표현은 어휘항목의 어휘의미분해를 포함한다. 어휘항목의 세타역할(theta-role)은 λ 의 실행(λ -operation)으로 나타낸다. λ 의 실행은 의미형식에 임베딩한 논항의 깊이에 근거하여 의미형식 중 논항의 변항(變項, variables)을 추상화 한 것이다. 의미형식에서 논항의 고유계층(固有階層)은 여러 통사론적인 과정(묵기-binding, 통제-control)에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타망(theta/ Θ -grid)에 사상(寫像)된다. 모든 동사에는 지시논항이 존재하며, 이 지시논항은 상황의 변항에 의하여 지시되는 동사의 최고랭킹논항(highest-ranked argument)이라고 한다. (15)는 어휘분해문법의 의미형식과 세타망(theta-grid)에 들어간 동사 ‘put’의 어휘항목을 기술한 것이다. 술부논항인 “P”는 최저랭킹 논항이다¹⁷⁾.

(15) put

세타망 : $\lambda P \lambda y \lambda x \lambda s$

의미형식: CAUSE(x, BECOME (SIT (y) & P (y))) (s)

위의 추상적형판(抽象型板, template)에 들어간 술부 “P”는 원소술부상수(原素述部常數, primitive predicate constant)이며 예문 (16)과 같이 표시된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는 (16)과 같은 명사형동사의 의미형식을 표시할 수 있다.

(16) 명사형사역동사

a. 착점동사: to braid

$\lambda y \lambda x \lambda s$ CAUSE (x, BECOM (BRAID (y))) (s)

16) 어휘분해문법에 관하여 Gamerschlag(2005), Kaufmann과 Wunderlich(1998), Stiebels(1996), Wunderlich(1997a,b; 2000)를 참고하기 바람.

17) Stiebels(1997)를 참조할 것.

b. 위치동사: to pack

$\lambda y \lambda x \lambda s$ CAUSE (x, BECOME (LOC (y, Rprox [PACK]))) (s)

c. 이동동사: to saddle

$\lambda y \lambda x \lambda s$ CAUSE (x, BECOME (POSS (y, SADDLE))) (s)

예문 (16)의 의미형식표시에 따라서, 명사형동사의 기반명사는 평판(型板)의 최저랭킹논항만 흡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b)는 Wunderlich(1991)의 전치사설명에 기초하여 표시한 위치관계이다. 이런 전치사는 두 개의 개체 간의 위치관계를 의미한다. 즉 이동한 위치와 관계 항 사이의 위치를 의미한다. “R”은 전치사가 인접한 지역을 표시하고 전치사는 또한 지역을 지정한다. “Rprox”은 명사형동사가 가까이 인접한 지역이다. “LOC”은 “어떤 위치에 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6c)의 “POSS”는 “어떤 물체에 접근할 기회를 얻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Hale과 Keyser(1993)가 기술한 어휘편입원칙(語彙編入原則, principle of lexical incorporation)에서 확인 한 사실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직접목적어논항만이 형태론적인 영과생동사형식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 (17)은 행위자 편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문이다.

(17) *It cowboied a polka

(목표한 문장: A Cowboy did a polka)

예문 (17)이 비문인 것은 편입된 기반 명사가 가장 안쪽에 위치한 가장 낮은 랭킹의 논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cowboy”는 성립되지만 “polka”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Hale과 Keyser의 어휘관계구조(lexical relational structure)와 어휘분해문법(lexical decompositional grammar)은 모두 非최저랭킹논항의 편입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Hale과 Keyser에서 분석한 것처럼 동사는 그 보어의 지정사를 편입할 수 없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며, 즉 동사는 머리어에서 머리어로의 이동제약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분석을 뒷받침해준다¹⁸⁾.

2.3 중국어와 일본어 명사형동사의 사례분석

현대중국어는 영어와 달리 명사형동사가 그다지 많지 않다¹⁹⁾. 현대중국어의 단음절 명사형

18) Travis(1983), Baker(1988), Redford(1998) 참조바람.

동사는 고대중국어에 남겨놓은 유물이며 특히 위치, 이동, 착점동사는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으며, 중국어는 도구동사가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된다²⁰⁾. 중국어의 명사형동사가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명사형동사의 사용빈도는 현대중국어의 “把”자문보다 훨씬 낮으며, “把”를 표지로 하는 중국어 문장은 전형적인 “處置”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把”자문을 제외한 문장이 본 논문에서 분석할 대상이다.

(18) a. 我家宝贝尿了裤子.

(우리집 귀염둥이가 바지를 오줌뉘서 적셨다)

b. 老王背了一百大米.(왕씨는 쌀 백 근을 등에 졌다)

c. 張三畫了四匹马. (짱싼은 말 네 마리를 그렸다)

(19) a. *老李瓶了水.

a'. Laoli bottled water. (이씨는 물을 병에 담았다)

b. *老李箱了那些书.

b'. Laoli boxed those books. (이씨는 책을 포장해줬다.)

예문 (18)은 중국어 명사형동사의 예문이다. (18a)의 이동동사 “尿(적시다/오줌을 누다)”는 명사 “尿(오줌)”으로 구성되었고, 대체된 엔티티 “裤子(바지)”는 이동동사의 위치이며, 목적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18b)의 위치동사 “背(짊어지다/업다/메다)”는 명사 “背(등)”로 구성되었고, 대체된 엔티티 “大米(쌀)”이 처한 위치와 일치하며, 목적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18c)의 착점동사 “画(그리다)”도 명사 “画(그림)”으로 구성되었고, 대체된 엔티티 “马(말 그림)”은 착점동사의 마지막 상태를 나타내며, 목적어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기술된 위치동사, 이동동사, 착점동사와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예문 (19)의 “瓶(병)”과 “箱(상자)”는 동사적 기능이 없으며, 대부분 명사가 예문 (19)처럼 유추될 수 없다는 것이 현대중국어의 현실이다. 이는 중국어 명사의 탈명사화(denominalization)을 보여 주고, 현대중국어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실 예문 (18)처럼 탈명사화 할 수 있는 명사들은 고대중국어의 잔여물이며 고대중국어에 현대중국어에 남긴 화석이다. 고대 중국어에는 영어 탈명사성유형과 같은 유형이 많이 존재했으며, 이런 형식 또한 고대중국어도 영어처럼 생산적인 통사론 형식이었다.

19) 이동동사로는 “點, 墊, 毒, 肥, 粉, 盖, 膏, 糊, 醬, 胶, 扣, 奶, 尿, 漆, 锁, 冂, 油, 罩, 泥, 瓦”

위치동사로는 “冰, 顶, 架, 窖, 炕, 套, 袖, 背, 圈”,

着點동사로는 “包, 串, 叠, 堆, 垛, 画, 卷, 捆, 片, 束, 扎, 折” 등이다.

20) Clark and Clark(1997)도 8가지 유형의 명사형동사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이며 지속, 경험과 기점 동사들은 자주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였다.

(20) a. 先生之恩, 生死而肉骨也.

a'. Teacher's kindness can bring a death man back *to life*, and cause a bone *to regrow flesh*.

(선생님의 친절함은 죽은 자를 *살이고 뼈에 새살이 나게 했다*)

b. 晉軍漢陵, 秦軍凡南.

b'. Jin *army* Hanling, Qin *army* Fannan.

(晉는 漢陵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秦는 凡南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예문 (20)를 통하여 우리는 고대중국어가 현대영어와 같은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형태학적인 약세와 이음절과정의 강제결과 대부분 단음절 명사형동사의 직접적인 사용은 현대중국어에서는 비문이 된다. 결과적으로 화석화된 명사형동사들은 명사형동사와 원형명사가 같이 사용하여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盖盖子(덮개를 닫다) / 畫畫儿(그림을 그리다) / 扣扣子(단추를 잠구다)”처럼 사용되는데 “-子”와 “-兒”는 현대중국어 명사 접미사의 표지이다. 현대중국어에서 명사형동사는 생산적인 통사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위의 예문들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일본어의 영파생은 경동사 “-する”구조와 연결된다²¹⁾. 이와 같은 구조는 Grimshaw와 Mester(1988)의 경동사(輕動詞, light verb)개념 사용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일본어의 영파생을 통한 명사형동사는 대부분 동명사(動名詞, verbal noun)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경동사 “-する”는 반드시 “-하다(DO)”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²²⁾. “-する”가 이런 구조에 사용될 때 “-する”는 전체 동사적 표현에 그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된 동사적 표현의 의미는 합성되어 이루어진 명사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 된다²³⁾. 일본어에서 대격표지 “を”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する”동사와의 사용에서 우리는 “を”의 첨가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명사에 직접 첨가 되는 “-する”형 동사이기 때문이다²⁴⁾. 예를 들면

21) 일본어의 동명사의 영파생동사임은 Miyamoto(1999)와 Masaaki Kamiya(2006)를 참조.

22) “-する”를 첨가한 용법에는 “ものおとがする(소리가 나다)”와 같은 자동사용법도 있고, 또 “たんじょうする(출생하다)”, “しきよする(사망하다)”, “かんしょうする(감상하다)”와 같이 “나타나다(OCCUR)”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도 있다. 이와 같은 “-する”의 자동사용법과 “나타나다(OCCUR)”의 의미를 지닌용법은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에 여기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23) Jacobsen(1992) 참조

24) 아래의 예문에서 보다 시피 명사성 의미를 소유할 때 대격(accusative) 표지 “-を”가 첨가된다. 명사에 직접 “-する”가 첨가되어야 동사성 의미를 나타낸다. 비록 일부 동사들이 두 개의 “accusative”를 동반할 수 있지만 예문 (2)의 “-する”는 하나만 동반 할 수 있다.

1) にほんごのべんきょうをする

2) *にほんごをべんきょうをする

3) にほんごをべんきょうする

-Masaaki Kamiya(2006)참조.

- (21) a. れんごうぐんが ほういした。(연합군이 적을 포위했다)
b. 子供のが せいちょうした。(어린이가 성장했다)
- (22) a. 運転手が くるまを いどうした。(기사가 자동차를 이동했다)
b. くるまが いどうした。(차가 이동했다)
- (23) a. ごようがくしゃの ろんぶんを ろんばくする。(어용학자의 논문을 반박하다)
b. こどもが そえじょうを はつげんする。(어린이가 자기소개서를 발표했다)
- (24) a. 5枚を コピーする。(to copy) (5장 카피하다)
b. 恋人たちは デートする。(to date) (연인들은 데이트한다)

예문 (21-23)의 동사 “包囲する”, “移動する”, “論駁する”는 명사 “包囲”, “移動”, “論駁”에 의해 구성되었고, (24)의 동사 “コピーする”, “デートする”는 명사 “コピー(copy)”, “デート(date)”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중국어처럼 단순한 명사형동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동사 “-する”를 첨가한 명사형동사이기에 “-する”동사라 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이 “-する”도 모두 타동성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다. 예문 (21b) “成長する(성장하다)”는 자동사이다. 일본어는 중국어와 달리 형태변화가 풍부한 언어이기에 전문적인 사역 표지 “させる”, “やらす”, “わせる”, “やらせる”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6) a. 田中は その かみの せつだんをした。
b. *田中は その かみを せつだんをした。
c. 田中は その かみを せつだんした。
(다나가는 그 종이를 절단했다)
- (27) a. (細かく) 先生は 田中に その かみを せつだんさせた。
(선생님은 다나가에게 그 종이를 잘게 절단시켰다)
b. 田中は (ぶきように) (こまかく) その かみを せつだんした。
(다나가는 그 종이를 서툴게 잘게 절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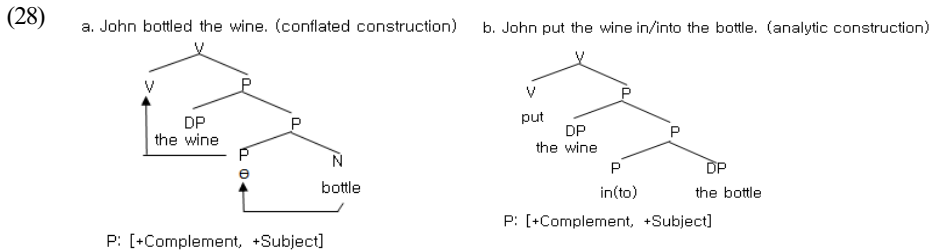
예문 (26a)의 관형어 표지 “の”에 의하여 “切斷”은 동명사임을 알 수 있고, (26b)의 각주 (23)과 같이 동사 “-する”는 이중목적어를 동반할 수 없으며, (26c)의 동명사형동사 “切斷する”는 동명사 “切斷”에 의해 구성되었고, 첨가된 엔티티 “かみ”와 일치하다. (27a)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어인 “細かく”의 선택적 논항과 사역표지인 “させた”로 의하여 엔티티 “かみ”의 결과적 상태를 묘사한다. 이것은 (27b)로 다시 환원시켜 엔티티 “かみ”의 결과적인 상태를 결과부사인 “無器用”와 “細かく”로 착점동사 “切斷した”임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문 (21)의 대체된 엔티티 “敵”은 위치동사인 “包圍する”과 일치하고, (22)의 대체된 엔티티 “車”는 이동동사 “移動する”와 일치하고, (23)의 대체된 엔티티는 “ろん論文”과 “添え状”는 착점동사 “論駁する”, “発言する”의 마지막 상태와 일치하다.

이와 같이 일본어는 동명사에 “DO”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 “-する”를 첨가하여 동명사형동사의 위치, 이동, 착점이 구성하고, 중국어는 명사가 직접 명사형 동사의 위치, 이동, 착점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25)

3. 명사형동사의 통사론적 접근

의미론에 기반한 명사형동사의 어휘분해는 Hale와 Keyser(1993, 1998)가 논 Jackendoff (1990)의 어휘통사적(語彙統辭, lexical-syntactic) 해석보다는 제약을 덜 받는다²⁶⁾. Hale와 Keyser가 제한한 명사형위치동사 “to shelve, to bottle, to jail”에 대한 어휘통사적분석은 (25)와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28a) 명사형동사 “to bottle”가 투사된 층형배열형태(層形排列形態, configuration)은 (28b) “put the wine in the bottle”의 구성성분분석구조와 비슷하다. 명사 “bottle”이 전치사 보어 위치에서 생성 되었고 이 명사가 공(空) 전치사머리어(head)와 융합한 다음 편입된 “<P+N>”이 공(空) 동사위치로 융합된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편입된 결과 명사형동사 “to bottle”이

25) 중국어에도 경동사를 사용한 denominal predicates가 있다. 즉 전통적으로 형식동사로 칭하는 “作 / 进行 / 加以 / 予以 / 给以 / 干”있으며 이들도 일본어 “-する”가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 논문의 취지를 벗어나기에 여기에서 논하지 않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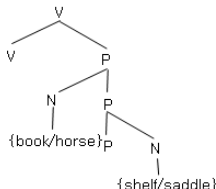
26) 語彙統辭에 관한 통찰력은 Jackendoff(1990)의 의미중심적인 방법이 많은 환대를 받았고, Hale와 Keyser(1993, 1997, 1998, 2002)와 Mateu(2000, 2002)의 통사중심적인 방법으로도 채택되었다.

산출된다. 여기에서 공(空) 전치사머리어, 즉 본질적인 관계요소(關係要素)는 종단부(終端部) 우연일치(terminal coincidence)된 전치사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영어의 위치전치사 “in” 혹은 “into”와 유사하다. 전치사의 지정사(指定辭, specifier)는 형태론적인 표면에서 동사의 내부논항이 된다(John bottle the wine). Hale와 Keyser에 기초한 이동동사 “to saddle”의 통사적인 층형 배열형태(層形排列形態)는 위의 (28a)에서 표시한 위치동사와 일치하다.

위치동사와 이동동사의 차이점은 “P”의 본질에 달려 있다. 위치동사의 “P”는 종단부 우연일치관계라고 간주하고(전치사 “to”, “out of”, 혹은 “off of”), 이동동사의 “P”는 중심부(中心部)의 우연일치관계로 간주한다(전치사 “at”, “in”, 혹은 “with”). 다시 말하자면 전치사와 융합을 이룬 명사형동사 “shelve”는 “종단부 우연일치관계”의 원형적인 예이며, 이것은 “John put the book on the shelf”에 대한 분석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전치사와 융합을 이룬 동사 “to saddle”는 “중심부 우연일치관계”의 원형적인 예이며, 이것은 “John provided the horse with a saddle”에 대한 분석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기술하는 “종단부 우연일치관계”는 Hale(1986)에 의하여 기술된 것이며, “종단부 우연일치관계”는 대상의 경로인 가장자리(edge) 혹은 종착점(終着點)과 대상 혹은 엔티티의 위치 사이의 우연한 일치를 수반한다는 의미이고, “중심부의 우연일치관계”는 대상 혹은 엔티티의 중심부와 대상 혹은 엔티티의 위치의 중심부 사이의 우연한 일치를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Hale과 Keyser(1993) 그리고 Mateu(2002)에 의한 분석에서 얻은 결과 명사형동사는 늘 타동성을 띠는 것이 증명되었다²⁷⁾. Kratzer(1996)의 능동태가설(Voice hypothesis)과 분포형태론(分布形態論, Distributed Morphology)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John saddled the horse/John

27) Mateu(2002)는 위치관(localist)의 관점에서 형용사형동사의 논항구조의 속성의 非原狀態(non-primitive status)를 관찰하고 나서, Hale와 Keyser의 논항구조유형모델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으며, 語彙目錄에 세 가지 기본적인 논항유형이 있다는 Mateu(2002)의 이론에 기초하여 위치동사(shelve)와 이동동사(saddle)는 같은 어휘통사구조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은 위치성동사의 “P”는 終端部 우연한 일치관계를 나타내고, 이동성동사의 “P”는 중심부 우연한 일치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명사형동사가 탈타동성(detransitivized)일 때 “PP”로 표현되고, 작은 절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은 절이 된다. 즉 내부 “P” 投射는 自立的 술어로 나타날 수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명사형 위치동사와 이동동사는 본질적으로 타동사성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the book shelled/*the horse saddled). 이 두 유형의 동사에 起動 변이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다시 바로 수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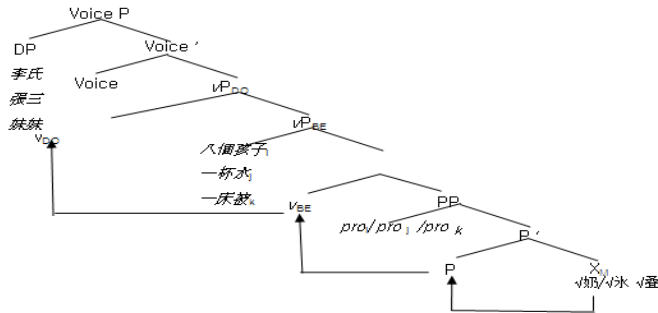
b. [BE_{ident}([Thing pill]), [AT_{ident}([Property powder])]]

중국어 명사형동사의 구조적 융합은 같은 형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의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중국어 명사형동사의 의미구조는 영어와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알 수 있었는데 다시 도식화 하면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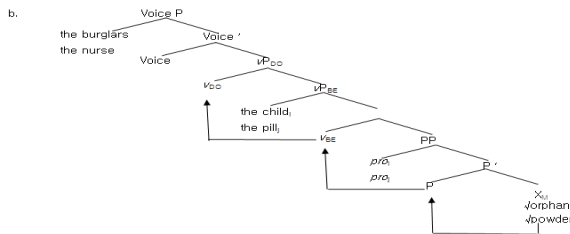
- (31) a. 위치동사: [x ACT] CAUSE [y BE at-N]
- b. 이동동사: [x ACT] CAUSE [y BE with-N]
- c. 착점동사: [x ACT] CAUSE [y BE in-N]

이와 같은 의미구조를 고려한다면 중국어 명사형동사의 통사구조에 대한 통일적인 분석은 (32)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 (32) a. 李氏奶了八個孩子/張三冰了一杯水/妹妹疊了一床被



이와 같은 명사형동사의 통사론적 분석을 통하여 영어와 중국어가 같은 양상을 보였고,



30) Mateu(2002)가 제안한 각주 (25)의 “P” 關係元素는 Jackendoff학파의 “同一化關係혹은 식별관계(identificational relation)”로 해석된다. 위에서 “vPBE”는 “PP”에 임베딩된 것이다.

그 분석기저에는 같은 매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위치동사, 이동동사, 착점동사를 통하여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영어와 중국어의 비교를 통한 것이기에 범언어적인 분석에서 효과적일지는 기타 언어의 사례분석을 진행해 봐야 한다. 위에서 보다시피 일본어가 명사형동사 구성에서 영어와 중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으며, 그 통사론적인 기저는 조금 더 다른 매카니즘이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차후 연구로 넘기려 한다.

4. 결론

어휘사역동사를 통하여 영파생인 기반명사가 동사로 구성되는 기능에 기초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명사형동사를 유추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영파생 명사형동사들은 의미론적 접근 방법으로 [ROOT]_N는 대응되는 명사형동사를 형태론적으로 [[box]_N]_V 보여 주고, 이 명사형동사가 지닌 의미는 기반명사와 근사한 의미를 나타내기에 위치, 이동, 착점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형동사는 필연적으로 인관관계가 있음이 도출된다. 명사형위치동사는 “[x ACT] CAUSE [y BE AT_{Spatial}-N]”, 명사형이동동사는 “[x ACT] CAUSE [y BE with N]”, 명사형착점동사는 “[x ACT] CAUSE [y BE AT_{Identity}-N]와 같은 어휘의미표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초에서 어휘의 개념적 의미론을 도입하여 의미형식과 개념구조를 식별하고, λ의 실행으로 어휘항목의 세타역할을 의미형식에 임배딩된 논항에 근거하여 논항의 변항을 추상화하고 그 추상화한 형판에 기초하여 명사형동사의 의미형식을 대입하였다. 그 결과 최저랭킹직접 목적어 논항만이 형태론적 영파생동사형식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도표 (16)과 같은 의미형식을 유추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어휘의미표현과 명사형동사의 의미형식을 통사론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편입된 명사는 공(空) 전치사머리어와 융합하여 복잡한 “<P+N>”이 공(空) 동사위치로 다시 융합되는 것을 도표화 하였다(도표 28). 공(空) 전치사머리의 본질적인 관계요소는 “중단부 우연일치관계”로 인하여 위치동사로 구성되고, “중심부 우연일치관계”로 이동동사가 생기고, “중단부 우연일치관계”로 엔티티 경로의 가장자리 혹은 중착점과 엔티티/대상 상태 위치 사이의 우연한 일치를 수반함을 증명하였다(도표 (29)(32)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도출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의 통사론적 분석은 영어나 중국어와 다름을 알고 있으며, 일본어의 기저에서 기능되는 통사론적인 매카니즘을 알아내기에는 좀 더 세심한

분석과 좀 더 많은 사례 분석이 요함을 알 수 있다. 유형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비교분석이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많은 개별 언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lark E and Clark H. 1997. When Nouns Surface as Vebs. *Language* 55: 767-811
- Hale K, Keyser S. 1993. On Argumnt Structure and the Lexci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University of Arizona Library Document Delivery
- Huang, C-T, James. 1997. On Lexical Structure and Syntactic Projection. *Chinese Languages and Linguistics* 3: 45-89. Taipei: Academia Sinica
- Jacobsen, Wesley M. 1992. The Transitivity structure of Events in Japanese. Tokyo: Kuroshio Publishers
- Kenji Yokota. 1999. Light Verb Constructional in Japanese and Functional Uncertainty. Proceedings of the LFG99 Conference.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Miriam Butt and Tracy Holloway King(Editors). CSLI Publications.
- Labelle M. 2000. The Semantic Representation of Denominal Verbs. *Amsterdam studies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linguistic science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Vol.-No. 197
- Lin J. 2004. Event Structure and the Encoding of Arguments: The Syntax of the Mandarin and English Verb Phrase. Doctoral Dissertation. MIT.
- Mateu J. 2002. Argument Structure: Relational Construal at the Syntax-Symantics interfa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Autonoma de Barcelona. Bellaterra. Annual
- Massaki Kamiya. 2006. The Implausibility of LF-incorporation in Japanese Light Verb Constructions. Volume 12. Issue 1 Proceedings of the 29th Annual Penn Linguistics colloquium.
- Miyamoto, Tadao. 1999. The Light Verb Construction in Japanese. The Role of the Verbal Noun. Amsterdam: John Benjamins.
- Sugioka Y. 2000. Transitivity Alternations in Deadjectival Verbs. Papers presented at th COE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on Dec. 9-10, 2000, at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 李英姬(2018)「使役句研究小考-以形原動詞爲中心」『中國言語研究』74집

논문투고일 : 2018년 12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2월 07일
 2차 수정일 : 2019년 0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5일

 <要旨>

명사형 사역동사 연구

-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

이영희

본 논문은 영과생인 기반명사가 동사로 구성되는 과정을 어휘사역동사를 통하여 유추하였다. 명사의 편입을 통하여 위치동사, 이동동사, 착점동사로 확장되는 것은 같은 매커니즘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미론적 접근과 통사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명사형동사는 모두 사역동사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사역명사형동사에 통일적인 분석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에 대입한 결과 영어와 중국어는 같은 양상을 보였고, 일본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A Study of Denominal Causative Verbs Inquiry

- Compare of English, Chinese, Japanes -

Lee, Young-Hee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cess in which nouns based on zero-derivation are composed of verbs through Lexical Causative Verbs. It is confirmed that expanding to location verb, locum verb, and goal verb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nouns works the same mechanism. Through lexical conceptual semantic and syntactic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l denominal verbs are causative verbs. This interpretation gave an opportunity to apply unified analysis to the denominal verbs. As a result of substitution into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as a specific language, English and Chinese showed the same pattern and Japanese showed a different pattern.